

## 지역 소식

## 패밀리트리를 완성하는 간단한 방법

- 부모님이 입력해 놓은 조상의 가계도를 나의 가계도로 연결하기 -

서울에 사는 정 형제는 패밀리서치에 자신의 조상의 기록을 입력해 본 적이 없다. 그의 부모님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딸이 태어났고, 딸의 정보를 자신의 가계도에 입력하기 위해 패밀리서치 웹 사이트에 접속했다. 돌아가신 조상의 기록이 자신의 가계도에 입력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던 정 형제는 텅 비어있는 자신의 가계도를 보고 당황했다. “부모님이 조상들의 기록을 입력하면 자녀인 저의 가계도에서도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부모님이 입력한 돌아가신 조상의 기록이 부모님의 가계도에서는 보이지만, 자신의 가계도 안에서는 보이지 않아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패밀리서치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연결할 수 없기에, 생존한 부모님의 정보를 바로 연결할 수 없고, 그들이 입력한 돌아가신 조상의 기록 역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미 입력해 놓은 가계도가 있는 경우, 이를 나의 가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부모님의 가계도에서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조상의 개인별 번호를 복사하고 나의 가계도에 붙여넣기를 함으로써, 이미 생성되어 있는 가계도를 나의 가계도에 연결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방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해 본다.

올해 초,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새해 메시지를 통해 현재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가족 역사 탐구와 색인 작업 등의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돌리도록 권고했다. 먼저 가까운 4대 가계도 완성을 위해 지금 패밀리서치에 접속해 보면 어떨까? 이미 다른 가족이 입력한 조상의 기록을 나의 가계도에 연결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을 통해 패밀리트리의 가지는 영생을 향해 뻗어나갈 것이다. ■



1. familysearch.org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가계도를 클릭, 살아있는 가족 중 누락된 가족의 이름과 정보를 추가한다.



2. 크롬, 엣지 브라우저 같은 다른 두 개의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하나는 자신의 아이디로,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아이디로 로그인한다.(하나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는 두 개의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3. 부모님의 가계도에서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첫 조상의 개인 번호를 찾아 복사한다.



4. 복사한 조상의 개인 번호를 자신의 가계도에 붙여넣고 검색하여 조상의 가계도를 연결한다. 부부가 검색 결과로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 생년월일과 이름이 정확하면 부부를 한꺼번에 추가하여 쉽게 가계도를 완성할 수 있다.



# BYU PATHWAYCONNECT, 한국에 상륙하다

교회 회원들은 BYU PathwayConnect(비와유 패스웨이커넥트)를 통해 자국에 남아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면서도, 미국 대학 교육의 혜택을 얻고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교**회와 BYU-Idaho가 함께 개발한 온라인 교육 과정인 BYU-PathwayConnect가 2021년 4월에 마침내 한국에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 회원들이 유학을 떠나지 않고 자국에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면서도, 미국 대학 교육의 혜택을 얻고 자립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BYU-PathwayConnect 과정을 이수하고 일련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BYU-Idaho의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입학하여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아래 3번 교육 과정 참고)

권영준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다. “BYU-PathwayConnect는 일종의 ‘BYU판 방송통신대학’입니다. 미국에 가지 않아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대학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배우고자 하는 의로운 소망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기회를 잡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것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의 선택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또는 만 18세 미만이라도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회원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2. 등록 절차: BYU-PathwayConnect 등록은 무료이며 고등학교 성적, 대입 시험 성적, 지도자와의 합당성 접견은 필요하지 않다. 단,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공식 웹 사이트인 [byupathway.org](http://byupathway.org)에서 약 90~120분이 소요되는 온라인 영어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단어, 문법, 듣기, 읽기 등 네 가지 분야의 객관식 문항으로 평가를 치른 후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 시험은 60일마다 1회 응시할 수 있으며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스테이크 및 지방부, 또는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EnglishConnect 1~2, 또는 EnglishConnect 3(온라인 유료 과정)를 통해 영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교육 과정: BYU-PathwayConnect는 총 세 학기로 구성되며, 각 학기는 14주 과정으로서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 최소 1년이 걸린다.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기초 교양 수업과 2학점의 종교 교육원 수업을 수강하여 학기당 5학점의 수업을 이수하며, 최종적으로 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휴학도 가능하다. BYU-PathwayConnect에서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신권 지도자와의 접견 후 BYU-Idaho 온라인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 BYU-Idaho 온라인 과정을 통해 전문 학사 학위 및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4. 학비: 학점 당 6만 원(53.5 달러)가량의 저렴한 학비로 BYU-PathwayConnect를 수강할 수 있다. 종교 교육원은 수강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학비는 통상 1년간 54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특히, 5년 이내에 귀환한 귀환 선교사는 25%의 학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수료 이후 BYU-Idaho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학하는 경우, 전문 학사 학위 혹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학점당 같은 비용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BYU-Idaho 온라인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총 120학점의 수업을 수강한다면, 총비용은 약 720만 원이다.(BYU-PathwayConnect 이수하지 않고 BYU-Idaho 온라인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 학점당 125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5. 온라인 주간 학급 모임: BYU-PathwayConnect 수강 학생들은 매주 온라인 주간 학급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 24명 이하로 구성된 각 학급이 주 1회 온라인 모임에 모여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며, 우정을 증진하고 서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6. 등록 일정 및 웹 사이트 안내: 가을 학기는 2021년 9월 10일에 시작되며, 현재 공식 웹 사이트 [byupathway.org](http://byupathway.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할 수 있다. ■

(자립 및 가족 서비스, 조현석 형제 [chohs@churchofjesuschrist.org](mailto:chohs@churchofjesuschrist.org) / 김윤석 형제 [kilyls@churchofjesuschrist.org](mailto:kilyls@churchofjesuschrist.org))

새로 부름받은 지역 칠십인

## 새로 부름받은 지역 칠십인 정동환 장로

지난 4월 3일에 열린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정동환 형제가 북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받았다.

**정**동환 장로는 1987년 3월, 입대를 하루 앞두고 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친구의 집 맞은편에 사는 선교사들을 우연히 만나 선교사들과 복음 토론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 침례를 받았다. 재대 후, 그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지내면서 시흥 와드(현 안양 와드)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김정숙 자매를 만났다. 독신 시절, 함께 선교 사업을 준비한 이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126기 동기로 함께 입소했으며, 부산 선교부에서 같은 시기인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전임선교사로 봉사했다.

정 장로와 김 자매는 귀환 후 데이트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미래에 꾸릴 가정의 가훈으로 삼자고 이야기했다. 이후 3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이 데이트 시절부터 정한 가훈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정 장로는 자신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고 간증한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충실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충실할 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부산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정 장로 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한번 부산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 부부로서 함께 봉사하게 되었다. 그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3년이 “수많은 훌륭한 회원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시간”이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2020년 8월 2일에 귀환한 정 장로는 선교부 회장 부름에서 해임된 직후, 실 틈도 없이 북 아시아 지역 칠십인 부름에 대한 접전을 받았다. 그는 “부름에는 은퇴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부름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전한다.

그는 지역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도 되지만, 저는 ‘주께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습니다.(니파이전서 3:7)

그리고 경전의 말씀처럼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니파이후서 31:20)’

정동환 장로는 한국 교회 및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의 각오를 나누었다. “첫째,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과 지역 회장단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곧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 개인의 간증과 신앙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4월 연차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공부하십시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공부의 집’으로 만듭으로써, 그곳에서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회원들이 각자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과 신앙을 갖고 나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의 빛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는 지역 칠십인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의 선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빛이 세상을 크게 밝힐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회개하여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환 장로는 2000년부터 21년간 한국 서비스 센터(관리본부)에서 총무부, 배부와 등을 거쳐 관리본부 한국 대표로 일했으며, 현재 북 아시아 지역 인적 자원부 책임자로 있다. 교회에서는 서울 남 선교부 회장단, 안양 스테이크 회장, 감독, 와드 선교 지도자, 고등평의원 등을 맡아 봉사했다. 김정숙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청년 회장, 초등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부름에서 봉사했다. 정 장로 부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이들은 일본 유학 중이던 1993년 12월 10일에 도쿄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2녀를 두었다. ■



# 아름다운 가게 기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물품 기부 행사

**헬핑** 핑핸즈 서울 동 센터가 지난 4월 5일에 '아름다운 가게' 남양주점에 물품을 기부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 물품을 판매한 뒤 수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단체이다. 더불어 여러 봉사자의 시간과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기부와 물품 수거를 위해 다수의 기부자나 봉사자가 집합하거나 대면하는 것이 위험한 시기이다. 헬핑핸즈 서울 동 센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고자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물품을 모아 보기로 했다.

물품 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각기 자가용을 타고 헬핑핸즈 서울 동 센터 지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당 몇 곳의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에 탑승한 채로 헬핑핸즈 봉사자들에게 물건을 건넸다. 소수의 봉사자들만이 물품을 건네받아 실외에서 물품 분류 작업에 참여했으며, 분류된 물품을 교문 와드로 이동시켰다.

봉사자들이 교문 와드에 모인 물품을 다시 한번 분류하여 판매 가능한 물품만을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가게 남양주점에 전달된 물품은 총 784개였다. 이 물품들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은 지역 사회 내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기부 행사에 참여한 동대문 와드 장효성 감독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누군가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좋았지만, 회원들 한분 한분이 모아주신 물품을 전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지는 느낌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름다운 가게 측 담당자는 "기부해주신 물품들 모두 상태가 양호해서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헬핑핸즈 서울 동 센터와 아름다운 가게 남양주점은 앞으로도 가능한 한 계절이 바뀌는 기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함께 실천해 나아가 계획이다. ■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 8명



**김선혜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2 와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임시: 부산 선교부)



**김한나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서울 남 선교부



**도서현 장로**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서울 남 선교부



**박채리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부산 선교부



**이성은 자매**  
전주 스테이크  
군산 와드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임시: 부산 선교부)



**이헌재 장로**  
대전 스테이크  
세종 와드  
부산 선교부



**이헌호 장로**  
부산 스테이크  
부산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정다영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  
부산 선교부

##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회장: 최내영 형제  
(전임: 박성욱 형제)

### 경기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감독: 장시성 형제  
(전임: 김송경 형제)

분당 와드 감독: 김기남 형제  
(전임: 유병철 형제)

신용 와드 감독: 임성렬 형제  
(전임: 최정원 형제)

###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감독: 강승진 형제  
(전임: 박관준 형제)

### 대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정양수 형제  
(전임: 김응조 형제)  
제1보좌: 이우영 형제  
제2보좌: 이기영 형제

###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감독: 이선우 형제  
(전임: 구규우 형제)

### 울산 지방부

포항 지부 회장: 전석현 형제  
(전임: 이준규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분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